



3면

전북도 "새만금, 세계 최고 모빌리티 실증지역으로... 국비 요청"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음 4월 10일) 제278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주매일

##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 찾다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전북도, 경청·공감 대토론회 신재생에너지·지역경제·사회적 대화 등으로 나눠 진행 지역균형 뉴딜 추진 성공 위한 협약 체결·국정자문단 출범



정부출범 4주년 기념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전북 대토론회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가 열린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송하진 도지사(사진 왼쪽)와 조대업 정책기획위원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업)와 공동으로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정부 출범 4주년 기념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전북 대토론회'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조대업 정책기획위원장, 양종모 새만금개발청장,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 주요 내빈과, 도내 학계 및 산업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기업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장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한편, 각계 전문가 간 소통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개최됐다. 대토론회에 앞서 개최식 및 전북도와 정책기획위원회는 지역 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 기관 간 상호 협력과 지원을 위한 협약식과, 지역 균형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학계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정자문단 출범식이 열렸다.  
이어 전북지역 균형뉴딜 추진방안 모색과 성공적인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과 신재생에너지,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지역뉴딜의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3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 뉴딜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맡은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소개와 추진전략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지역균형 뉴딜로, 전북형 뉴딜의 성공 요인은 지역 주도의 창의적이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일

어나 발굴해 추진하는지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1세션 '한국판 뉴딜과 신재생에너지' 주제는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과 전병순 전북도 혁신산업국장의 발제와 임성진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2세션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주제에는 소준호 우석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원용찬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 이강진 전북연구원 본부장, 성기만 새만금개발청 전문위원의 발제와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 등 4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끝으로, '지역뉴딜의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3세션에는 황지욱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채준호 전북대 교수, 김현철 군산대 교수의 발제, 이두희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일자리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이 선택한 것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문명'이라고 하면서 '전

북형 뉴딜은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위해 핵심사업인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 ICT 융합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2025년까지 일자리 11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 지사는 "정책기획위원회와 전북도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타 지역에 비해 상호 균등한 협력 시스템을 통해 전북형 뉴딜의 성공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대업 위원장은 지역 언론인, 전북 국정자문단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한국판 뉴딜 홍보와 지역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도민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하며 "전북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정책기획위원회 차원에서 남다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위원장은 21일에는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및 도내 주요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광역시 준하는 지원으로 실질적 메가시티 조성"

### 균형발전 행보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 정치권에 요청 앞서 이철희 靑 정무수석 만나 특례 지정 등 현안 건의

김승수 전주시장이 광역시가 없어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국가적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그에 준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균형발전 행보에 나섰다.  
김 시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배 최고위원(서울 성북구갑, 행안위)과 박완주 정책위 의장(충남 천안을, 행안위), 전혜숙 최고위원(서울 광진구갑, 과기정통위), 김문덕 의원(전주갑, 국토위)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반영과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광역시 없는 권역 실질적인 메가시티 ▲전주-김천간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등의 지원

을 요청했다.  
우선 김 시장은 전국의 모든 지역이 차별 없이 균형을 맞춰 성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 없는 권역을 실질적인 메가시티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 정부의 국가예산 배분과 공모사업 선정, 예타 면제 등 추진시 광역권 중심으로 배분이 이뤄지면서 전북의 경우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발전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권역별 예산 규모만 살펴봐도 전북권은 약 19조 원 규모에 불과한 반면 광역시가 있는 ▲부산·울산·경남(66조) ▲광주·전남(34조) ▲대전·세종·충남(32조) 등은 2~3배가량 많은 예산을 받아가면서 권역간 격차가 심화돼 지역 불



김승수 전주시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배 최고위원(서울 성북구갑, 사진 왼쪽)과 박완주 정책위 의장(충남 천안을), 전혜숙 최고위원(서울 광진구갑, 사진 오른쪽) 등 여당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균형을 가져왔다.  
이에 김 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중심으로 우선 광역시에 준하는 광역화를 이뤄낸 뒤 전북도와 묶어 실질적인 메가시티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어 전주를 '제정이 수반되는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100만 이상 도시가 받는 특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전주-김천간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최종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김 시장은 ▲다가·태평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백제 실감영상관 및 실감콘텐츠 구축 등 국가공

모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전주시 특례 지정 ▲전주-김천간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반영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오랫동안 광역시가 있는 지역과 비교해 차별을 받아왔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발전 전략도 광역시 중심으로 지역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전주가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